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시민과 시민을 잇는 징검다리를 꿈꾸며

그 뜨거운 여름날 오후

세상이란 수레바퀴는 돈다. 꼭 30년 전. 1987년 6월 그는 서울 명동 거리에 있었다. 모든 게 뜨거웠다. 직사하는 햇살도, 복사한 아스팔트 열기도, 끓는 가슴도 뜨거웠다. 온 나라가 목이 탈 정도로 가물었지만 서울 한복판은 물결쳤다. 수많은 시민으로 홍수를 이뤘다.

6월 어느 날, 저녁 6시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앞. 소리 없는 사람 소용돌이가 친다. 어색한 화장, 안 어울리는 귀걸이, 빌려 입은 듯한 치마, 커 보이는 양복….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한 대학생들이다. 물론 시민도 있다. 어깨를 부딪칠 정도로 붐비는 시간대. 수십 분째 주변을 맴돌이 하는 이들이 있지만 경찰은 눈치채지 못한다. 이화여대, 연세대 등 신촌 주변 대학생들은 이날 이곳에서 모이기로 했다. 또래 남학생만큼 키가 큰 한 이화여대생도 있다.

애국가가 울리고, 차도, 사람도 멈췄다. 그땐 그랬다. 나라·국민의 애국심을 한 데 묶는다는 말도 안 되는 군부들의 허튼짓이었다. 소리가 나는 찰나 학생들은 도로로 몰려나간다. 마른 콩을 바닥에 던졌을 때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학생들은 도로를 향해 뛰었다. 두 손을 들고, 버스며, 택시며, 승용차며, 움직이는 모든 것에 멈추기를 청한다. 경적, 아우성, 브레이크 파열음이 뒤섞여 어지럽다. 비지땀 속에서 강렬하면서도 선한 눈앞에 모두가 멈춰 선다. 도로 점거.

차가 서자, 도로는 사람 차지다. 자연스레 시민도 물결에 합류한다. '호헌철폐 독재 타도' 외침은 차도, 사람도 멎게 했다. 시민의 바람, 시민의 염원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저 셋만 모여도 불안한 정권은 공권력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 언제나 제 맘대로 꺼내 휘두르기 일쑤였다. 아니나 다를까 순간 '뻥뻥', '타다 다닥다닥' 굉음과 함께 곳곳에서 희뿌연 연기가 올랐다. '콜록콜록', '에취', '퉤퉤', '웩' 비명과 구역이 아수라장을 이룬다.

'피해라!'와 '거기 서!'의 맞대결이다. 곳곳에서 뜀박질이 시작된다. 그도 달렸다.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무작정 달렸다. 방향도, 목적도 없다. 생각도 없다. 오직 현장을 벗어나는 게 급선무다. 한참을 달렸더니 '거기 서!'가 더는 따르지 않는다. 눈, 코, 입 모든 얼굴 구멍에선 타액이 줄줄 흘렀고, 속이 메스껍다. 토는 연신 목구멍을 자극한다.

그때 오뉴월 뙤약볕 하늘에서 휴지들이 눈처럼 내렸다. 둥근 두루마리, 납작한 일회용 휴지들이 팝콘 터지듯 거리에 앉았다. 물오른 가로수 사이 뽀얗게 드리운 하늘로 눈을 들었다. 문 열린 사무실에선 손이 물결친다.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넥타이들이 수두룩하다. 혼자가 아니었다.

"천사가 따로 없었죠.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흘렀죠. 최루탄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눈물이 고통을 잊게 했죠."

명동 신세계 백화점 앞 시위에 참여할 때였다. 갑자기 지랄탄으로 불리던 최루탄이 주변에 집중적으로 떨어졌다. 피할 겨를도 없었다. 파편이 팔에 튀었다. 자연 상처가 났다.

"남보다 저를 탓했죠. 제대로 못 싸우는 얼치기였으니까요. 뒤늦게 배운 운동 아닌 운동이 어쭙잖은 부상까지 나게 한 거죠."

한 번은 가방을 빼앗기기도 했다. 가방을 들고 나오지 말라는 선배들의 말을 듣지 않은 걸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신분증 등을 탈탈 털렸다. 며칠 뒤 한 전경이 가방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했다. 헌데 신분증은 만날 때 주겠다고 했다. 포기하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었다. 여느 여학생보다 키가 커서 눈에 잘 띌 법했지만 그는 용케도 잘 버텼다.

그는 30년 전 6월을 그렇게 거리에서 보냈다. 아니 그해 봄부터 여름까지



그랬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진 뒤 박종철 열사 49재와 고문 추방 국민대행진,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헌조치, 이한열 열사 사망과 6월 항쟁으로 이어진 그땐 거리가 교실이었다.

"7월 그 뜨거운 날, 서울시청에서 100만 인파와 함께 한 이한열 열사 장례 행렬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역사의 장면이죠. 시민의 한 사람으로, 깨어있는 학생으로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 날 그 순간만은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그때 이화여대 4학년이던 최윤정(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씨는 운동권 학생이 아니었다. 운동권 학생이라기보다 깨어있는 시민 가운데 하나였다. 신촌, 명동, 서울역 광장 등에 찍힌 수백만, 수천만 시위대의 점 가운데 의미 있는 하나였다.

"3학년 2학기 때 교지 〈이화〉에 들어갔어요. 늦었지만 호기심도 있고 기자도 되고 싶고 해서 발을 들여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죠. 치열하진 않았지만 그 늦바람이 6월 항쟁의 한가운데로 이끌었죠. 지나고 나니 그 또한 운명이었네요."

교내도 시끄럽긴 매 한가지였다. 그해 6월 9일 교지 〈이화〉도 홍역을 치렀다. 당시 지도교수는 외부기고는 물론 표지까지 검열하고, 일부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와 동기들은 검열에 저항하는 뜻으로 일부 원고를 그대로 실어 인쇄했다. 한바탕 난리가 났다.

이대는 일주일 뒤 15일 시험 연기를 결의하고 8,000여 명이 교문에서 전경과 대치했다. 얼마 전 정유라 사태 때 언론이 보도한 '30년 전후 이화인의 시위 사진'이 실린 바로 그때다. 당시 경찰이 앞세운 최루탄 차에 모두 거리에 누워 맞섰고, 전경조차 이화인의 호소에 눈물을 보였다. 전설 같은 얘기다.

2017년 봄. 그는 다시 서울 거리에 섰다. 30년 세월이 흘렀을 뿐 달라진 게 없다. 내리쬐는 태양 아래 뜨거운 가슴이던 맨주먹엔, 모진 바람에도 흔들릴지언정 꺼지지 않는 촛불 하나 쥐어졌을 뿐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너무 궁금해 서울 광화문을 여러 번 찾았죠. 남편하고 몇 번, 딸 하고도 몇 번. 30년 전 그때 그렇게 거리에서 목 놓아 외쳤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룬 게 없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요. 우리가 이겼잖아요. 30년 의미 있는 세월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아줌마

2006년 3월 한 아줌마가 경실련 문을 두드렸다.

"면접 보러 왔는데요…."

그는 경실련 신입 상근 활동가 모집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가 그를 맞았다. 이두영 전 사무처장. 나중에 동갑내기였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면접에 앞서 이력서와 보도자료 작성을 요구했다. '아파트 고분양가'를 주제로 보도 자료를 제출했다.

"어디에도 보도 자료를 제출하고 취업하는 경우는 없을 걸요. 당시엔 의아했죠. 하지만 지금 보면 시민단체 활동 가운데 보도 자료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아마도 숙제를 낸 게 아닐까 생각했죠."

바닥부터 시작했다. 복사, 전화 등 허드렛일이 산처럼 쌓여있었다. 출판 기획사, 건축 잡지사 기자, 학원 강사 등 나름 화려한 경력은 뒷전이었다. 20대에 결혼하고, 30대에 아이 기르느라 한동안 일을 쉰 '경력 단절' 여성의 설움이라 생각했다.

그의 청주행에 다들 놀랐다. 말리는 이도 많았다. 누군가는 "미쳤다"고도 했다. 그의 청주행은 단순했다. 1991년 10월 결혼한 그는 경기 성남에서 살았다. 수도권 생활 12년은 부부에게 새로운 삶을 권했다. 남편 김범준 씨는 출판사를 하다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

"작은 꿈이 있었어요. 3층 집 사서 1층엔 서점, 2층엔 출판사, 3층엔 살림집 하는 겁니다.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그땐 그냥 수도권을 벗어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여러 후보 중에 청주를 택했죠."

그때 성남 아파트를 팔았다. 복잡한 수도권을 떠나 지방 소도시에서 소박하게 살고 싶었다.

애초 남편은 좀 더 하방을 원했다. 충남 공주, 부여 등의 후보지가 등장했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다. '청주 정도까지만'이었다. 더는 양보할 뜻이 없었고, 남편도 더는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게 청주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줄 그들도 몰랐다.

"용감했죠. 일단 집은 살 수 있고, 또 뭐든 하면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영어 번역을 하든가, 아니면 영화 보고 관련 글을 쓰든가, 또 아니면 그 지역에 맞는 걸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지나고 나니 좀 무모하긴 했지만…."

그렇게 청주에 왔다. 하지만 얼마 뒤 그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택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수도권에 부동산 광풍이 불더니 2억 원대에 판 아파트는 이미 세 배나 껑충 뛰어 있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방에 안 내려가는구나. 우리에겐 돈이 참 안 붙는구나. 그리고 우린 다시 올라갈 수 없구나 하는 현실을 알게 됐죠."

그는 이후 줄곧 청주 상당구 용암동의 한 아파트에 산다. 경실련 상근활동가가 된 첫해 그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사 활동을 했다. 낯설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이해하고, 여럿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경실련에서 맡은 첫 일은 '아파트 거품 빼기 운동'이었다. 돈 하고 거리가 먼 '마이너스의 손'인 그에게 어쩌면 운명 같은 첫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참여정부 초기 부동산 시장은 요동쳤다. 2002년 평당 600만 원, 2억 원대였던 아파트(30평형)는 2005년 8억 원으로, 2007년 14억 원으로 치솟았다. 경실련은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본부'를 꾸렸다. 무엇보다 아파트 원가 공개에 초점을 맞췄다. 토지비, 건축비, 가산비용 등 아파트 가격 책정의 출발점을 제대로 분석해 공급자 중심의 '깜깜이' 분양값의 거품을 빼려 했다.

"그때 워낙 아파트 값이 요동쳤어요. 서울, 수도권이 심했지만 청주도 조금씩 바람을 타던 시기였죠. 아파트 원가를 공개해 공급자 중심의 아파트 분양 시장에 수요자의 뜻을 반영하게 한 것이 기억에 남네요."

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이다. 2009년 초 회원에게 역점 사업 관련 설문조사를 했더니, 절반(49%) 정도가 서민 경제 관련 사업을 꼽았다. 그해 4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21곳과 함께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을 꾸렸다. 그는 사무국장으로 실무를 맡았다. 무엇보다 홈플러스 등 밀려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공격적 확장을 막는 데 힘썼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대형마트 전쟁을 벌이던 때로 자고 나면 마트가 하나씩 생기곤 했다. 대형마트들이 생겨나면 날수록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은 생기를 잃어 갔다.

"거의 날마다 기자회견하고, 집회했죠. 대기업 자본을 낀 대형마트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처럼 보였지만 꾸준히 시민을 조직하고,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 냈죠. 낮엔 싸우고, 밤엔 공부하는 나날이었는데 참 많이 배운 기간이기도 했네요."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전국 네트워크와 함께 '유통산업 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끌어내 유통 공룡들의 잠식을 막아냈다.

"당시나 지금이나 대형마트 등의 공격적 확장에 있어 청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최고 전략 지역으로 비쳤죠. 법적 토대를 마련해 대기업 자본을 막아낸 게 무엇보다 효과적이었죠. 당시엔 전국적으로 상황이 비슷했는데 몇몇 지역에서는 청주의 노하우를 일러달라고 하기도 했죠. 참 열심히 활동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위기도 있었다. 2012년 초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이 시행되자 대기업 자본은 대형 로펌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고, 청주도 시행 3개월 만에 중단됐다. 규탄집회·불매운동 등을 다시 진행했고, 상생이란 이름 아래 지금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휴일 의무 휴업이 지켜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규제 완화라는 허울을 내세워 대기업 친화적 정책을 펴면서 위기를 맞았죠. 일부 교수·상인들도 상생기금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휴일 의무 휴업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자고 할 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와 경실련은 최근 유통재벌 입점 저지를 위한 연대 기구 결성을 제안하는 등 유통재벌들의 시장 잠식에 대한 감시는 여전히 예리하다.

“자치단체들은 유통재벌의 입점을 기업 유치로 포장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동네 상권과 시민을 지켜내려면 상인과 시민단체 등이 힘을 모아야 해요.”

그는 2011년 1월 8회 동범상을 받았다. 동범상 위원회는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을 통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 등의 규제법 제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제겐 의미 있는 상이었죠.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두 자녀에게 제 일을 인정받기도 했으니까요. 수상 소식을 알리자 딸이 ‘경로우대냐’고 해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는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정보공개를 통한 공무원 비리·비위 대응, 청주공항 민영화 반대 등 그렇게 일 속에 파묻혀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는 아줌마의 힘을 믿는다. 주변을 의식 않는 담대한 수다, 바퀴벌레를 때려잡는 용기, 머리엔 물동이, 등엔 아이, 두 손엔 장바구니를 들고도 남편·아이를 몰고 가는 괴력… 이런 아줌마가 아니라 아줌마들이 지닌 위대한 참여의 힘을 믿는다.

“누구나 살림하면 다 잘하는 줄 알았죠. 저도 아이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는 생활 속에서 확실히 다른 아줌마들의 그 눈을 믿는다.

“저도 아줌마잖아요. 아파트값 거품 빼기, 중소상인 살리기 등 그동안 진행한



2006년 11월 개최한 대농1지구 금호어울림아파트 추정분양원가공개 기자회견.(2006년 경실련에 들어와 처음으로 대응했던 정책사업)



2009년 7월에는 24시간 영업 및 SSM 확장전략 철회를 요구하며 홈플러스 불매운동을 전개함.(이후 유통법, 상생법 개정의 견인차가 됨)



2010년 5월 열린 민선4기 충북지역 단체장 공약이행 최종평가 발표 기자회견의 모습.

사업 뿐 아니라 우리 주위의 소소한 문제들을 개혁하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시민이지요. 그중에서도 아줌마들의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영원한 내편

그 차를 타지 말았어야 했다. 그 말을 들어주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 그 차를 타길 잘했다.

가열했던 87년 봄·여름을 지낸 그는 연말 처절한 낭패감으로 좌절했다. 아스팔트에서 보낸 청춘들이 무색하게도 헤어스타일만 다른 군인이 다시 권력을 잡았다. 희망이 사라졌다. 그렇게 씁쓸하게 한 해를 보낸 그는 친구의 권유로 야학을 시작했다. 졸업을 앞둔 1988년 1월에 참으로 용감했다. 서울 신당동 달동네의 한 교회. 주변엔 작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고, 배움에 굶주린 노동자들이 많았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번 노동법, 특히 근로기준법을 강의해 달라는 것이어서 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교회와 갈등이 생기면서 그해 3월 아예 독립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뛰어듦과 새롭게 만들어야 할 책임을 함께 지기로 한 거죠."

공부는 정해지지 않고 노동자들이 물어오면 답하는 식이었다. 그러다 노동법도 일러 주고, 노동의 가치, 노동자의 권익 등도 두서없이 나눴다. 야학은 고려대와 이화여대 학생 몇몇이 연합으로 꾸렸다. 야학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면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싶어 하는 이들도 늘었다. 처음엔 7~8명이더니 10여 명으로 불어났다. 뒤늦게 중·고등학교 때 보던 수학·영어·국어책을 꺼내 수업 준비를 하기도 했다.

"학생 때도 그랬지만 운동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농활도 가고, 노동 운동하는 친구, 선후배 등을 보면서 조금씩 사회에 눈을 떠가던 시기였죠. 누군가를 가르친다기보다 하루하루 함께 하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수강생은 들쭉날쭉했다. 야간 잔업이 그날 수업을 좌우했다. 자개농 공장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는 지문이 아예 닳아 주민등록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일했다. 생활보다 생존에 가까운 노동자들이었기에 결석과 부재는 어쩌면 자연스러웠다. 노동자들의 학구열은 책임감으로 돌아왔다. 배우려는 열의가 커가면서 야학 유지에도 신경 써야 했다.

"책을 들고 가르치는 일보다, 알음알음 구한 전화번호를 들고 선배·지인 등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때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축소·은폐됐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를 찾기도 했네요. 그땐 부끄러움도, 무서움도 없었던 시절이었네요."

1988년 10월 야학을 접은 뒤엔 출판문화운동을 꿈꾸며 출판사에서 일했다. 다른 출판사 기획물을 대행하거나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CBS방송국 등에서 맡기는 소책자를 제작했는데 출판사 일은 오래가지 못했다.

"말도 안 되는 글을 고쳐주고 있는 것이 불만이었죠. 하고픈 일이었는데 나를 속이면서 일을 할 순 없었죠."

야학 때도 그러더니 출판 일을 하면서도 고려대 출신들과 자주 어울렸다. 하루는 한 선배가 누굴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참 괜찮은 친구다. 운동하다 구속됐다가 최근 특사로 나왔다. 근데 그때 실연한 뒤 10년 동안은 여자 안 만난다는 녀석이다. 한번 만나 볼래."

"아뇨! 됐어요. 웃겨 자기가 뭐 길래."

그렇게 잘랐다.

"웃기잖아요. 뭐 대단한 사람이 실연했다고 10년을 여자 안 만난다는 둥…. 굳이 만날 이유도 없었고요. 만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내다 며칠 뒤 선배 출판사에 갔다가 그를 만났다. 김범준 씨. 동문 몇몇이 바둑 관련 책을 내던 출판사를 인수해서 사회과학 관련 책을 낸다고 했다. 그는 이런저런 말을 붙이고, 알은 체를 하는 등 호감을 보였다.

"시간 되면 언제 술 한 잔 사요."

"아 예."

또 그렇게 시간이 갔다. 그러다 또 우연히 그를 만났다. 이대 앞 버스정류장이었다. 범준 씨는 대뜸,

"전에 술 사라 했는데 왜 안 사는 거요. 날 잡아서 봅시다."

지금 지나고 보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몇 번을 우연히 만났다.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운동권 선배 별로였거든요. 근데 막차 시간이 다가오는 것도 모를 만큼 얘기가 잘되더라고요."

그렇게 둘은 사랑을 키워갔다.

"여러 얘기 중에 운동에 앞서 어머니에게 장문의 편지를 띄운 것이 생각나요. 설득할 순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 자신을 설명하려 했던 순수함이 느껴졌어요. 그게 제 마음을 움직였다고나 할까요. 여느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였으니까요."

범준 씨는 운동권이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이른바 '범생'이었다. 게다가 귀하디귀한 3대 독자였다. 고교 때 장학퀴즈에 나갈 정도였다. 꼴찌에서 두 번째라던가? 여하튼 일등과도 별 차이가 안 났다고 했다. 재판 때 그의 변론을 들은 어머니는 "공부해서 변호사나 목사가 돼라"고 했다. 하지만 범준 씨는 단칼에 거절했다.

"통일될 때까지는 대학원 가서 내 안위를 위해 살지 않겠다."

참여정부 때 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이 있었지만 범준 씨는 신청하지 않았다.

"보상을 바라려고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됐다."

윤정 씨는 "이 사람 멘탈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대단한 원칙주의자이기도 합니다"라고 했다.

둘의 집엔 책이 많다. 모두 출판일을 할 정도로 독서광이기 때문이다. 범준 씨는 윤정 씨 생일 때마다 도서 상품권을 선물한다.

"책이 너무 많아 이사 할 때 이삿짐 아저씨한테 혼나기도 했어요. 책 정리를 했더니 겹치는 게 많았어요, 하지만 다른 것은 버려도 책은 못 버리게 해 아직도 지고 다녀요."

범준 씨와 윤정 씨는 1991년 10월 27일 결혼했다. 신혼여행이 걸작이다. 비행기는 한 번 타자는 말에 둘은 김포공항으로 갔고, 부산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그날 길일이라 그런지 공항에 갔더니 온통 신혼부부였어요. 제주도는 좀 촌스러운 것 같아 부산으로 갔죠. 아마 그 많았던 신혼부부 가운데 부산행 비



행기를 탄 커플은 우리가 유일할 걸요."

참 잘 맞는 부부다. 신혼 초 때부터 집에 텔레비전을 두지 않기로 했다. 라디오 듣고, 책 읽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비슷한 게 많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는 결국 옆집에 가서 확인했다.

"집안일도 잘하고, 밖에서도 잘하는 슈퍼우먼이 되고 싶었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지난 대선 때 정의당 심상정 후보 남편이 부러웠죠. 하하. 하지만 남편은 수시로 조언하고, 답 주는 영원한 내 편입니다."

딸 친구가 되다

그는 또래보다 한 해 일찍 학교에 갔다. 어머니의 작품이다. 애초 4월에 났지만 두 달을 당겨 주민등록을 했다. '이대 나온 여자'니까 워낙 총명했기 때문일까?

"좀 웃긴 얘기지만 단순히 키가 커서 일찍 학교에 보내려 했다네요. 유치원 때까지는 이름도 '순희'였는데 유명한 작명가를 시켜 이름도 '윤정'으로 바꾼 걸 보면 좀 기대가 있긴 했던 모양인데…. 여하튼 '순실'이 아닌 게 다행이죠."

그에겐 딸 한슬(26)과 다섯 살 터울의 아들 한결(21)이가 있다. 둘 다 개성이 뚜렷한 청년들이다. 한슬은 〈문화방송〉 드라마 조연출 일을 시작했고, 한결



은 최고의 래퍼를 꿈꾼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사는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워낙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데다, 일에 치여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정·가족은 머릿속·가슴속에만 일등인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그는 자신 있다.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은데 그중 하나는 10여 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설움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 함께 했다는 자부심은 있네요. '나 어렸을 때 엄마가 간식해 놓고 기다릴 때 정말 좋았어'라는 아이의 말은 지금도 뿌듯해요. 남편보다 제가 아이들과 훨씬 친하죠."

그는 그렇게 아이와 함께 살았다. 고민도 있었다.

"큰 아이를 낳고 기를 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내 존재감, 자존감 같은 게 생각나더라고요. 육아에만 갇힌 듯한 마음도 들었고 갑갑하기도 했죠. 몸도 좀 안 좋아졌던 것 같고……."

하지만 그는 "엄마 나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라는 딸의 말에 유쾌하게 지고 말았다. 그렇게 둘째가 나고, 가정엔 2대 2 성비 균형이 맞춰졌다. 하지만 3대 1로 남편이 질 때가 허다하단다.

"제법 터울이 나는 둘째여서 힘이 들기도 했지만 다행히 남편이 많이 도왔죠. 되도록 아이와 시간을 많이 가지려 했고, 또 아이와 약속은 지키려고 힘썼죠. 일하는 여성에겐 육아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사회가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요즘 아이들이 좀 큰 것도 있지만 너무 바빠 '칼퇴근'하는 게 소원입니다."

딸은 아픈 손이기도 하다. 한슬은 공부를 잘했다. 아니 의지가 강한 아이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 고교에 진학했다. 어려서부터 변변한 학습지 공부하나, 학원 한 번 보내지 않았는데 용케도 성적은 좋았다.

"턱걸이로 겨우 학교에 들어갔는데 첫 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 책도 많이 보고, 아름다운 가게 일도 하는 등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 듯 보였는데 놀랐죠."

하지만 큰 기대를 품고 들어간 학교는 아이를 힘들게 했다. 한슬은 2009년 9월 고교 2학년을 다니다 자퇴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책을 많이 읽고, 고교에서도 소설책을 보는 자율적인 아이였죠. 하지만 0교시에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자율학습, 기숙사 생활, 그린마일리지라는 이름에 가린 벌점제, 한 달에 한 번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슈퍼선데이'…. 결국 아이는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는 학교 권력을 뒤로하고 학교에서 나왔죠."

한슬은 학교를 나오면서 친구들에게 편지를 남겼다.

"(중략)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내 선택이 도피일지도 몰라. 사실 너무 무섭고 걱정돼. 지금도 속으로는 나를 이해 못 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을지 몰라.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학교를 떠나게 된 이유라도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학교를 나온 한슬은 충분히 자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행복한 고 3을 보내다 또래와 같은 해 대학에 진학했고,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그날 학교를 걸어 나오던 날 잊을 수 없죠. 내 판단이, 아이의 판단이, 우리의 결정이 맞나 등등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죠. 하지만 나는 아이를 믿었고, 아이 또한 저를 지지했죠. 생각보다 아이는 훨씬 커 있었고, 우린 그렇게 친구가 됐죠."

징검다리

'경실련 최윤정', '참여연대 이선영', '민언련 이수희'…. 충북 시민단체의 여성 활동가들이다. 사무국장, 사무처장으로 일한다. 세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을 충북 시민단체 활동 3세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으리라. 지금이 시민단체의 위기라고 하는 이도 있고, 기회라고 하는 이도 있다.

그는 지금이 시민단체의 위기라는 진단을 내렸다.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가지는 기대감과 함께 시민단체의 존재감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니 위기라고 해야겠죠. 지난해부터 이어진 촛불 시민 혁명과 함께 다시 시민단체에 기회가 왔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위기입니다."

그의 분석은 냉철했다.

"사회의 변화에 시민사회가 못 따라간 것이죠. 시민들은 암울했던 이명박·박근혜 시대를 지나면서 시민단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시민단체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죠. 선제적으로 앞서가지도 못했고,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판을 깔지도 못했으며, 더 다가가지도 못하는 사이 시민들이 조금씩 멀어져 갔죠."

그는 시민 속으로 더 들어가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충북경실련 20년사 〈다시, 시민 곁으로〉를 펴낸 것이 출발점이다. 2016년 10월 27일 청주시청 인근(사직대로361번길 70)에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문을 연 것도 같은 맥락이다. 1층엔 마주 공간으로 누구나 들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고, 교육·공연·토크쇼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2층엔 경실련 사무실과 회의실이 자리하고, 3층은 작은 시민단체와 청년 사회적 기업 등이 함께 일하는 공간이다.

"결국 시민이 답이죠. 공교롭게 시민단체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사이 여성들이 몇몇 단체의 사무국장·사무처장으로 자리하면서 시민단체의 위기를 여성 탓으로 돌리려는 지적들이 솔직히 못마땅하고 힘들기는 했죠. 그 지적을 뜯어놓고 보면 활동 내용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언론에 노출이 적다는 등이어서 속상했죠. 이 또한 시민 안에서 활동으로 풀어야 하겠죠. 그래서 시민에게 더 다가가려 합니다."

그는 시민단체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하는 자강론자이기도 하다.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은 흔히 박원순 서울시장을 롤 모델로 꼽죠. 하지만 박 시장을 말하기에 앞서 그만큼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가 가진 변호사·정치인으로서의 위치도 그렇지만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그의 노력, 정책, 비전 등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지요. 꾸준한 공부가 그를 만들었듯이 시민단체와 활동가들도 공부해야 합니다."

그는 요즘 입버릇처럼 '징검다리'를 이야기한다. 시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와 활동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구실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201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무처장을 맡은 데 이어, 지금 두 번째 임기의 길을 가고 있다.

"지금 경실련 회원의 평균 연령이 50살이 넘을 걸요. 20년 넘게 경실련과 함께 해온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어쩌면 젊은이들의 참여가 적다는 말일 수도 있죠. 과거 경실련 대학생회에선 이병관(경실련 정책국장)·이일우(SK하이닉스 청주경영지원실장) 등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아쉽죠."

그가 꿈꾸는 징검다리는 시민단체 안에도 존재한다.

"얼마 전부터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2000년 총선연대의 추억을 지닌 분들은 연대회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개별 단체보다 28개 단체가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단체 간, 또는 20~50대까지 단체 활동가간 소통 부재를 말하기도 합니다. 시민사회 안 소통 부재의 현실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의 수레바퀴가 언제나 돈다는 것을 믿는다. 30년 전 명동 광장에서 그랬듯이, 오늘 촛불 광장이 이뤘듯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30년 뒤 다시 새 오늘을 열 것을 믿는다. 그는 시민으로 통하는 징검다리다.

오윤주